광주 '귀금속 떴다방' 기승

외지인들 아파트 단지 돌며 "최고가 매입" 부추겨

시세 모르는 노인들 피해 많아… 보상 요구도 못해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귀금속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귀금속 시세를 잘 알지 못하는 고령자들의 피해가 크지만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도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단지 앞. 광주시내를 돌며 귀금속을 매입한다는 떴다방 업자 김모(58)씨가 아파트 정문 한쪽에 '은수저 삽니다. 금이빨 삽니다'라고 써 붙여 놓은 천막을 펼쳐놓고 영업을 벌이고 있었다.

1평 남짓 비좁아 보이는 공간 안에는 금 열쇠고리와 은수저 세트, 저울 등이 올려진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기자가 아파트 주민을 가장해 순금(24K) 1돈(3.75g)이라는 보증서가 든 열쇠고리 장식을 내밀며 가격을 문의하자 김씨는 저울에 달아보더니 "1돈이 안된다"며 "13만5000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요즘 금 가격에 대해 물어보자 김씨는 "한참 오르다가 최근 떨어지는 추세"라며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파는 게 좋다"며 설득했다. 일반 귀금속 매장에서 들은 가격과 차이가 난다고 하자 김씨는 "이 가격이면 잘 쳐주는 것"이라며 "5000원 더 쳐주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4시께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있던 떴다방 업자도 자신이 적어온 최근 시세표를 보여주며 "14만5000원을 주겠다"고 판매를 강요했다.

하지만 이날 한국 금 거래소가 발표한 순금 시세는 1돈에 21만8350원까지 올랐다. 나흘 동안 3번이나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지난 2008년 8월 10만9760원에서 3년 만에 2배 오른 기록이다. 이날 광주 지역 금은방 소매업자들에게 순금 1돈 매입가를 문의했더니 19만5000원~19만8000원 선이었다.

이처럼 광주 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귀금속을 사들이는 떴다방을 쉽게 볼 수 있었고, 중량이나 시세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었다.

18일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귀금속 떴다방'이 천막을 펼쳐놓고 영업을 벌이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떴다방 업자에게 은수저 매입을 문의하던 주민 이모(여·64·광주시 동구 산수동)씨는 "최근 귀금속 값이 오르고 있다던데 광주는 아직 안올랐나 보다"며 떴다방 업자의 말을 인용해 말했다. 또 그는 "일주일 전에도 급하게 돈이 필요해 떴다방 업자에게 금반지(2돈)를 팔았는데 28만원을 받았다"고 말하며 손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광주 귀금속보석기술협회 김종영 회장은 "나이 드신 분들이 종종 귀금속 떴다방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전에 금일 시세를 살펴보고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인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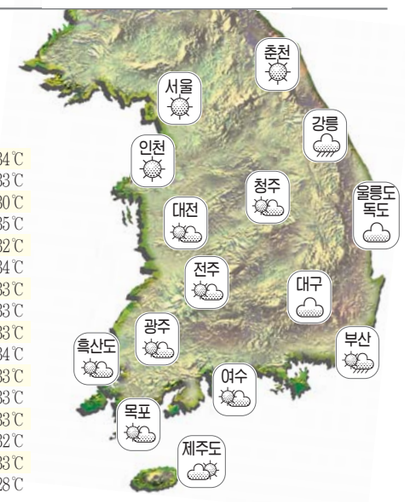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32분 해짐 19시 46분 달뜸 21시 48분 달짐 09시 15분

푹푹 쪄요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고, 오후엔 가끔 구름많겠다.

광 주	구름차차많아짐	25/34℃
목 포	구름차차많아짐	24/33℃
여 수	구름차차많아짐	25/30℃
나 주	구름차차많아짐	25/35℃
완 도	구름차차많아짐	23/32℃
구 례	구름차차많아짐	24/34℃
강 진	구름차차많아짐	24/33℃
해 남	구름차차많아짐	24/33℃
장 흥	구름차차많아짐	23/33℃
순 천	구름차차많아짐	25/34℃
영 광	구름차차많아짐	24/33℃
진 도	구름차차많아짐	24/33℃
전 주	구름차차많아짐	24/33℃
군 산	구름차차많아짐	24/32℃
남 원	구름차차많아짐	24/33℃
흑산도	구름차차많아짐	22/2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5~2.5m
먼바다	북~북동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2.0~3.0m
먼바다	북~북동	2.0~4.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매우높음	경고	매우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5~2.5m
먼바다	북~북동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밀물	썰물
목포	04:46 16:53	09:56 22:00
여수	11:21 23:41	05:19 17:1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날 씨						
최저/최고	25/33	24/31	24/30	23/30	23/30	23/30

폭염 시작…열사병·일사병 주의보

환자 78%가 7~8월 집중… 노인·당뇨환자 위험

지루한 장마가 물러가고 광주·전남·북을 비롯한 전국에 폭염이 시작되면서 열사병과 일사병 주의보가 내려졌다. 실제로 연간 발생하는 열사병과 일사병 환자 가운데 80%가량이 7~8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열사병 및 일사병에 관한 심사 결정자료를 토대로 월평균 환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의 78%가 7~8월에 집중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8월에는 연간 환자의 49.2%에 달하는 63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7월에도 29.0%에 해당하는 375명이 열사병과 일사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매년 7~8월 중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인 일수를 계산해 분석하면 열사병 및 일사병 진료인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환자 분포(지난해 기준)를 보면 40세 이상이 전체의 75.1%에 달해 노인들이 일사병과 열사병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사병과 열사병은 흔히 같은 질환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대비해야 한다. 흔히 '더위를 먹었다'고 부르는 일사병은 더운 공기와 강한 태양광을 오래 받아 우리 몸이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이다. 수분과 전해질 소실에 의해 무력감·현기증·심한 두통을 동반하고, 피부는 차갑고 촉촉하며 체온의 변화가 크지 않다.

이에 비해 열사병은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지속적인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을 내보내지 못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고열을 동반하는 것이 일사병과 구분되는 점이다. 특히 무덥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거나 운동할 때 심신 허약자나 노인, 심장병·당뇨병 등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잘 생긴다.

심평원 황재택 상근심사위원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며, 실내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채희종기자 chae@·연합뉴스

"왜 가족에게 전화 하느냐"

장휘국 교육감, 일선학교 '청렴시책' 반발에 발끈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청렴시책에 대한 반발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장 교육감은 18일 오전 시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최근) 감사 결과와 징계절차 등에 대한 학교현장에서의 반발, 불만 등이 있다"며 "(교육감)가족에게까지 항의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나한테)전화했다면 감사에 대한 규정,내용 등을 잘 설명했을텐데 가족한테까지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감이 징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가급적 징계위에 개입하지 않으려 했다. 내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며 법과 규정에 따라 했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요즘 일선 교장들 사이에서 (자기만) 집중 감사를 한 것 아니냐 하는 말이 있지만 전반적인 감사과정에서 (교장들의 비리가)집중적으로 나왔다"며 "그럼에도 이를 오해한 것은 반성도 없고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이해 못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특정집단에 대한 감사가 지나치다. 이는 과거 (봐주기)처럼 하지 않는다는 불만인 것 같다"며 "교장들이 회계를 몰랐다.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편의로 말한 것이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순천대 총장 선거 교수 4명 입후보

지난달 임상규 전 총장의 자살로 오는 27일 치러지는 제 7대 순천대 총장 선거에 4명의 교수가 출사표를 던졌다.

18일 순천대총장임용추천위는 27일 실시되는 제 7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신향근(56·수학교육), 김준선(55·산림자원), 송영무(57·수학교육), 정진오(54·우주항공공학) 교수 등 4명이 최종 등록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전남교육청 공무원노조 집행부 동반사퇴 선언

윤양일 전남교육청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이유근 사무총장이 18일 동반사퇴를 선언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무실·행정실 통합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노조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시점에서 이들의 행보와 그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사퇴의 변'에서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교육현안 등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많은 비판과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